

2025년 대림판공문제집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대림 제1주간 | 강생의 신비

대림 제2주간 | Fiat(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대림 제3주간 | 하느님의 자비

대림 제4주간 | 구원의 도구이신 마리아

수원교구 복음화국



권두언

전례력으로 새로운 해를 여는 대림시기를 맞으며, 교구 복음화국 기획연구팀에서는 대림 판공 문제집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를 준비했습니다. 대림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 삶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순명 안에서 드러난 육화의 신비를 묵상하며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 판공 문제집의 주제는 성모님의 믿음의 응답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육화의 신비가 겸손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원의 도구로서 가장 훌륭한 사랑과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지금도 우리 각자가 매 순간 되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판공 문제집은 대림 4주간의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육화의 신비와 성모님의 겸손한 응답의 의미를, 교리를 통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주간의 복음과 교리를 연결한 신앙 배움터,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판공 문제들을 통해 대림과 성탄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판공 문제집이 신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가오는 성탄을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구원의 신비로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기쁨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득 채워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교구 복음화국장 | 김태완 바오로 신부

CONTENTS | 2025년 대림판공문제집

권두언

대림 제1주간 | 강생의 신비

02 복음 말씀 | 마태 24,37-44
03 말씀 나누기
04 신앙배움터
11 판공 문제

대림 제2주간 | Fiat(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14 복음 말씀 | 마태 3,1-12
15 말씀 나누기
16 신앙배움터
23 판공 문제

대림 제3주간 | 하느님의 자비

26 복음 말씀 | 마태 11,2-11
27 말씀 나누기
28 신앙배움터
35 판공 문제

대림 제4주간 | 구원의 도구이신 마리아

38 복음 말씀 | 마태 1,18-24
39 말씀 나누기
40 신앙배움터
47 판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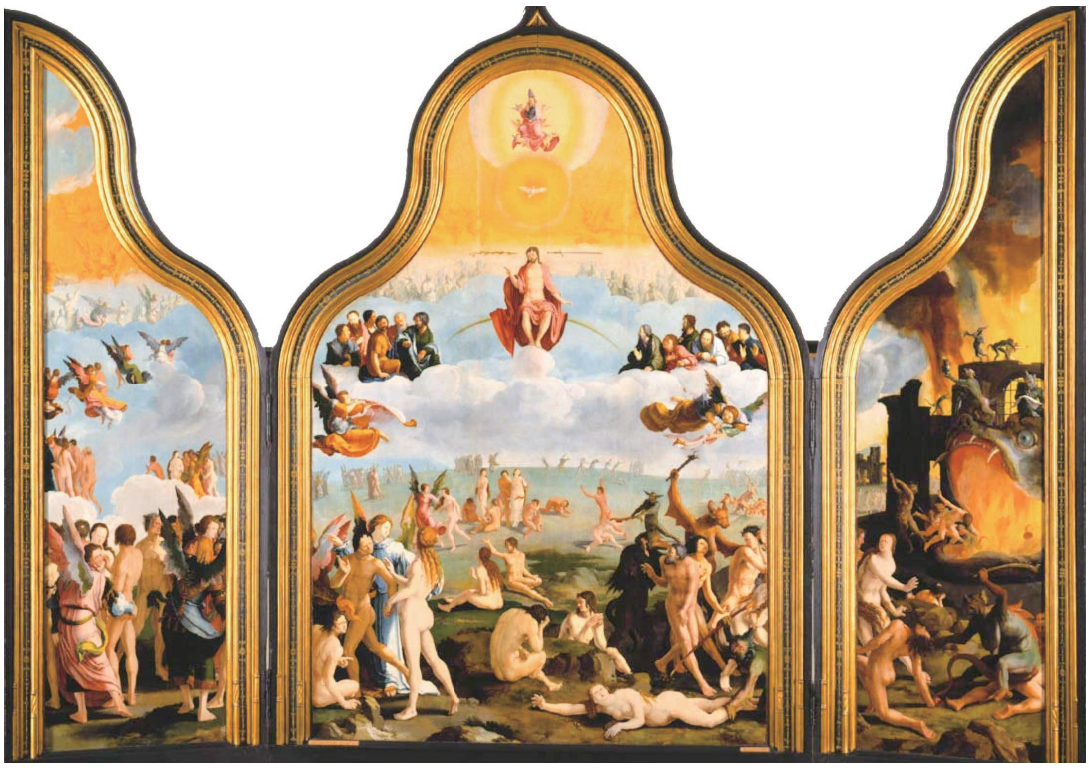


대림
제1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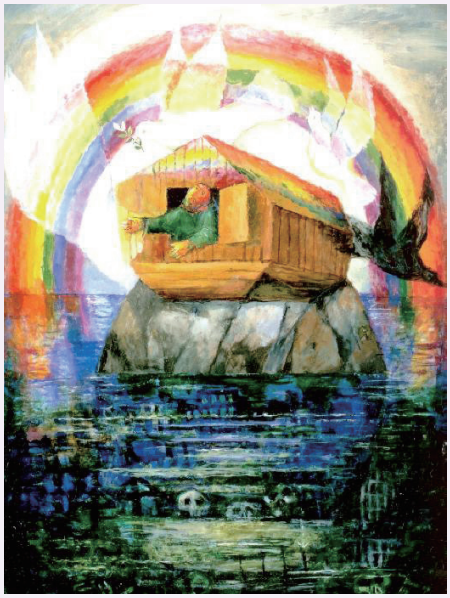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복음 말씀 | 마태 24,37-4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 나누기



◎ 지거 쾨더 신부 〈노아의 방주〉

대림 제1주일인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 시기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셨음을 기념하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인 동시에 이러한 기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 날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과 '깨어 기다림'입니다. 이 주일의 전례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녀야 할 우리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고 전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들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니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닥칠 그 날을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일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림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깨어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로마 13,12-14).

우리가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 준비한다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앙 배움터 | 강생의 신비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중)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 신비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그리고 복음서의 첫머리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하느님 자신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을 바탕으로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일을 '강생'(降生) 또는 '육화'(肉化, incarnatio)라고 부릅니다.

01 하느님의 사랑,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은 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교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처음 창조될 당시에 누렸던 특별한 친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죄 중에 헤매며 구원을 갈망하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 의지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십



니다.(마태 1,23 참조)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의 시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인류를 원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2베드 1,4)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1]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자, 성령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생명의 친교에 인간 역시 참여해서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인격적 친교를 통해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강생을 통하여 죄 중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하심으로써 바로 그분을 통해 인간이 삼위일체적인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삼위일체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인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을 성화(聖化, Sanctificatio), 신화(神化, Deificatio)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궁극적 목적입니다."[2]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육화한 하느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세례와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도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라는 강생 사건을 창조-구원-완성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생의 목적은 단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윤리적, 영적 완성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3]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 가운데 살도록"(요한 1,14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강생의 신비는 교만한 인간을 치유하고, 욕심 많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렴풋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말씀'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02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1세기 말을 전후해서 신약성경의 기록 작업이 종료되는데, 신약성경의 일차적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 사명과 신비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초세기의 교회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론은 구원론적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즉, 당시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사명에 대한 이해가 그분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으로 전환되어, 초세기의 네 차례 보편 공의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본격적인 교의적 그리스도론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4]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냐'에 따라 구원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중 교회 내부 혹은 그 경계선에서, 복음 선포 내용에 대한 그릇된 해석들, 즉 이단적 주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초기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도 그분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곧, 신적 기원을 지닌 로고스가 인간의 연약한 육체적 조건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육화'(肉化, incarnatio)와 인간 실재를 거부했습니다. 그 반대로 참된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은 예수님이 그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카리스마가 출중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무엇보다 대표적 이단인 '종속론적인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5]에 의해 교회는 크게 분열되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은 오직 성부만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진정한 하느님이시고, 로고스는 세상 창조 이전에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이러한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참하느님도 참인간도 아닌 그 중간의 존재로 간주하였습니다."[6] 여러 지역에서 아리우스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면서 아리우스 주장과 관련된 혼란을 해결하고자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1,700주년을 맞는 니케아에서 열린 제1차 공의회는 하느님의 아들이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시라고 그 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여러 명제들을 이단으로 단죄하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아리우스 이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결국 381년 두 번째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아리우스 이단은 다시 한번 결정적인 단죄를 받게 되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선포되기에 이릅니다. 성자에 대한 신앙고백의 전반부에서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단들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 에페소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 단죄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하느님이며 참사람이라는 교의가 확정되는데,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위격 안에서 결합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결

합은 두 본성의 혼합을 의미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결합도 아니며, 오히려 인성의 완전함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신성의 실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유일하고도 유례없는 강생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분적으로 하느님이시고 부분적으로 인간이시거나, 하느님과 인간의 불분명한 혼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참하느님으로 계시면서 참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십니다."[7]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신 참하느님이시기에 우리를 삼위일체의 사랑과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이끄실 수 있고,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신 참사람이시기에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03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삶

올해도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연말의 휴일일 뿐입니다. 신자들 안에서도 그들과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반복되는 하나의 전례적 절기로 여길 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매 주일 미사에서 신경을 통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라고 성탄과 관련하여 깊은 절을 하지만, 어떤 의미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인지 음미하지 않고 습관적인 행위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강생의 궁극적 이유는 하느님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 지거 쾨더 신부 〈그레치오에서의 크리스마스〉

에 사랑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은 항상 자신의 인격이며, 자기의 선을 통해 다른 이에게 전달됩니다. 이렇듯 강생은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원하신 신적 계획의 완성이며, 이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 계획 전체의 목적이 되며, 우리의 소명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하느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시기 위해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어 자신을 낮추셨고, 그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1요한 1장 참조) 주님의 강생은 단지 이천 년 전 말구유에서 이루어지고 끝난 과거나 추억이 아니며,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강생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자신과 가장 작은 이들을 동일시하십니다. 이와 같이 강생의 신비는 우리가 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가난한 이를 통해 육화하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1요한 4,20) 따라서 강생의 신비를 따르는 삶이란, 육화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의 가장 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과 나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가는 삶입니다.

강생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육화의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신 길을 충실히 따라 걷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의화되며, 구원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은총의 삶입니다.

미주

❶ 「가톨릭교회 교리서」, 460항

❷ 윤주현, '그리스도 강생의 의미', 「사목정보」 제120, 2020

❸ Angelo Amato, 김관희 역, 「예수 그리스도」, p.747

❹ 박준양,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p.343

❺ 4세기 초반, 리디아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256?-336)는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다는 주장을 폈던 안티오키아의 루키아누스(250?-312)의 제자로 종속론적인 그리스도론을 주장함

❻ 박준양,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p.353-356

❼ 「가톨릭교회 교리서」, 464항

참고 문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톨릭교회 교리서」, 2008
- Angelo Amato, 김관희 역, 「예수 그리스도」,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2
- 박준양,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생활성서사, 2009
- 윤주현, '그리스도 강생의 의미', 「사목정보」 제120호, 2020

01 전례력으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시기이며,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되시어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대축일을 준비하는 이 시기는 언제인가?

❶ 연중시기 ❷ 대림시기 ❸ 사순시기 ❹ 성삼일

02 세상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말로, 오늘 복음에서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마태 24,44)라고 표현한다. 그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❶ 만찬 ❷ 재림 ❸ 부활 ❹ 성탄

03 다음 (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대림 제1주일 복음(마태 24,37-44)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과 ( )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

04 대림 제1주일 복음(마태 24,37-44)에서 예수님은 여러 인물들의 예를 들어 재림에 대해 언급하셨다. 예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인가?

❶ 노아
❷ 맷돌질하는 두 여자
❸ 들에 있는 사람
❹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

05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❶ 복음의 정신에 따라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준비해야 한다.

❷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멀리하며, 고행을 통한 극기 생활에 정진해야 한다.

❸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기에 교회법만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 지키도록 충고해야 한다.

❹ 그날과 그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곧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산다

06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1,14)의 말씀처럼 성자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일을 무엇이라 하는가?

❶ 육화(肉化) ❷ 성화(聖化) ❸ 신화(神化) ❹ 부활(復活)

07 '말씀'은 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❷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❸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삼위일체적 친교에 참여하여, 성화를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❹ 강생은 단지 인간의 원죄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08 대표적 이단인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❶ 말씀은 창조되지 않고 한 처음부터 성부와 함께한 한 본체라고 말한다.

❷ 예수 그리스도는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❸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고, 로고스는 세상 창조 전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다.

❹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09 다음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라고 미사 중에 고백하는, ( ) 신경이 두 번째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선포된다.

10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거리가 먼 것은?

❶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강생의 궁극적 이유인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❷ 하느님 구원계획의 완성인 인간의 성화, 신화되기를 바라며 우리도 그분의 삶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것이다.

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나눔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

❹ 주님의 강생은 이천 년 전 이루어지고 구성된 개념이기에, 우리는 성탄절에 강생을 떠올리면서 기념하고 그리워해야 한다.

대림
제2주간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말씀 | 마태 3,1-12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인권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강력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참된 회개를 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회개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죄와 욕망, 정념에 대한 영혼의 더 깊은 정화를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때로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고귀하고 정직하며 순수하게 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죄로 기우는 경향,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성찰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여, 기쁨과 감사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배움터 | Fiat(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Fiat(피앗)"은 라틴어로 "그렇게 되소서." 또는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受胎告知)에 응답하며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신뢰를 나타내며, 희망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Fiat(피앗)"은 인류 구원을 위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응답은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길을 열었으며, 죄와 절망에 빠져 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신비로운 순간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Fiat(피앗)"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01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예'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단지 하느님이 인간이 되는 '수단'에 그친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만 하느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의 신앙의 응답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 (손희송, 「주님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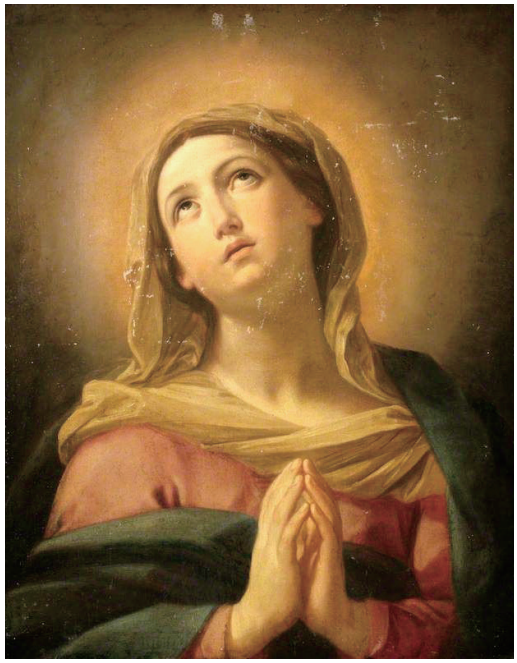
신앙인의 어머니」, p.233)

"Fiat(피앗)"은 믿음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지적 이해를 넘어선 전인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마리아의 "Fiat(피앗)"은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을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Fiat(피앗)"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줄 알아야 하며,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Fiat(피앗)"은 겸손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님의 종"(루카 1,38)이라고 낮추며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리아의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에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마리아를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의 겸손과 헌신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희망을 품도록 이끌어 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은 마리아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이시고 그 누구보다 각별히 헌신적인 동반자이셨으며, 또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다"고 표현합니다.[1]

02 마리아, 우리들의 어머니



그리스도교 초기의 여러 신앙고백문은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선포합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고백하고, 381년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431년에 개최된 에페소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예수님과 수난을 함께하시며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신 마리아를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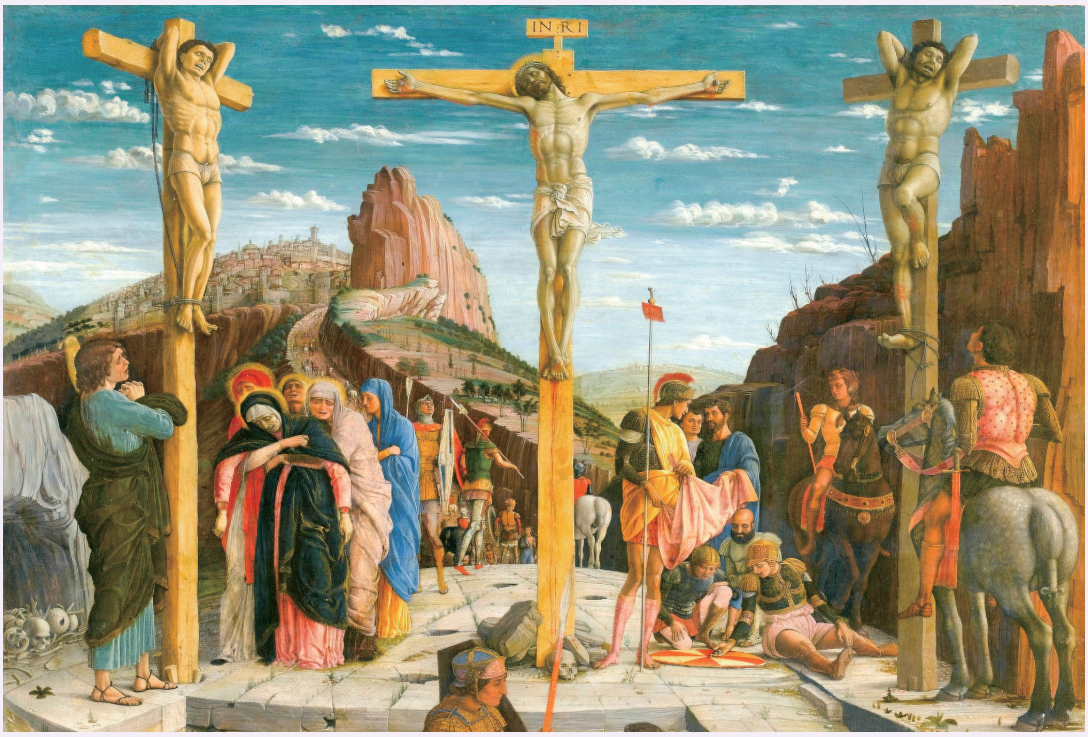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2]"이시며, "평생 동정[3]"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4]"되시며, "하늘에 불러올림[5]" 받으신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받아들여 그녀가 보여준 믿음, 순종, 겸손, 헌신 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면 놀랍고 고귀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마리아를 바라보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마리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런 존

재니까요. 어떤 어머니든 아이를 낳을 때, 아기가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기 이전부터 어머니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예수님처럼 마리아 역시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늘나라에 살아계십니다. 마리아는 부활과 새로운 창조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예수님의 유언에 응답해서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로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브랜드 피트리,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p.250)

03 희망의 Fiat(피앗)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발치에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슬픔에 압도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Fiat)하고 대답하셨고, 하느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4항)



마리아의 "Fiat(피앗)"은 단순히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受胎告知)에 의한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는 그녀의 기도입니다.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단순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 안에서 오히려 구원의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Fiat(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을 반복하며, 말씀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고통은 슬픔과 절망적 상황에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여정이었으며,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사랑 때문에 겪는 슬픔의 고통 안에서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어머니, 곧 희망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마리아를 바다의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의 별이라는 호칭은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어, 우리가 희망과 신뢰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시고 격려하신다는 확실한 희망을 보여 줍니다.[6]

04 우리들의 Fiat(피앗)

마리아의 "Fiat(피앗)"은 한 개인의 응답을 넘어 공동체의 길로써, 신앙, 순종, 겸손, 헌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의탁과 신뢰를 나타내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은 인류 구원을 위한 희망의 빛이었으며,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변화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마리아의 "Fiat(피앗)"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인 동시에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 사랑과 헌신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우리에게 겸손

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우리는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받아들이며, 사랑과 봉사라는 응답을 통해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미주

❶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61항

❷ 하느님의 어머니 :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선포했다.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가 단지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의회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으므로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강조했다. "마리아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 바로 하느님이신 그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509항)

❸ 평생 동정 : '평생 동정'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는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의 결정문에 등장한다. 그리고 라테란 시노드(649)에서는 마리아가 출산 전에, 출산 중에, 출산한 후에도 동정녀였다고 선언한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성령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출생은 당신 어머니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교회헌장」, 57항)하였으며,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기억하며 공경한다"(「교회헌장」, 52항)고 선언한다.

❹ 원죄없이 잉태 : 1854년 교황 비오 9세의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에서 선포.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가톨릭교회 교리서」, 491항)

❺ 하늘에 불러올림 :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 「지극히 자애로우신 하느님」을 통해서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마침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천지의 모후로 들어 높여지시어, 군주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교회헌장」, 59항)

❻ 교황 프란치스코,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4항 참조

참고 문헌

- 교황 프란치스코,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Spes Non Confundit), 2024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Lumen Gentium), 2020
- 손희송, 「주님의 어머니, 신앙인의 어머니」,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 「가톨릭교회 교리서」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 제2판 2023
- 브랜트 피트리, 임성근 역,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바오로딸, 2022

01 세례자 요한이 복음을 선포한 곳은 어디인가?

❶ 사막 ❷ 절벽 위 ❸ 광야 ❹ 성전

02 마태오 복음 3장 2절에 나온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말을 쓰시오.

.....

.....

.....

03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한 일은 무엇인가?

❶ 몸을 깨끗이 했다.
❷ 배불리 먹었다.
❸ 거룩한 성가를 불렀다.
❹ 자기 죄를 고백했다.

04 다음 중 대림 제2주일 복음(마태 3,1–12)에서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 아닌 것은?

❶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❷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❹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0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회개와 그에 따른 우리의 자세가 아닌 것은?

❶ 십계명만 열심히 지키고 그에 따른 회개의 행위만 하면 된다.

❷ 잘못된 습관, 죄악된 경향을 버려야 한다.

❸ 양심을 성찰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❹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06 대림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❶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

❷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신비로운 순간을 묵상하는 시기

❸ 마리아의 "Fiat"를 기억하는 시기

❹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시기

07 다음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십시오, 저는 (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08 마리아의 "Fiat"(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❶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❷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도 예언의 완성과 구원 희망을 나타내며 한 말이다.

❸ 인류 구원을 위한 희망의 시작이었다.

❹ 천사가 한 말이기에 그냥 대답을 한 것일 뿐이다.

09 마리아의 "Fiat"(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아닌 것은?

❶ 믿음과 순종

❷ 겸손과 헌신

❸ 사랑과 희망

❹ 지식적인 믿음과 교만

10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과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의 "Fiat"(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을 잠시 묵상한 뒤 본인의 다짐 또는 느낀 점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대림
제3주간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복음 말씀 | 마태 11,2-11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말씀 나누기



대림 제3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오늘 입당송에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므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성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마태 11,3)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신 하느님 자비를 있는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도록 일러줍니다. 이는 이사야서 35장 5-6절에 예고한 표징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하시며 당신이 바로 유다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는 말라키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앞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을 매우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느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장차 누릴 기쁨과 행복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은 종말의 심판관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마태 11,3)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찾아오십니다.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미사 안에서도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이나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비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며 성경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자비로이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01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자비

성경은 구원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구절부터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하느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전지(全知)하심, 영원하심, 유일함, 광대함, 거룩함, 자비로움, 의로움, 진실하시고 충실하심, 지극히 선하심, 관대하심, 공평과 정의, 인내와 끈기 등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로는 "질투하는 하느님"(탈출 34,14)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이는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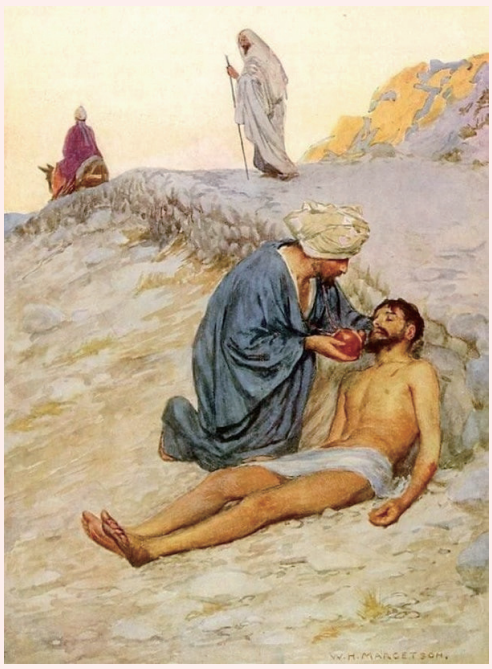
하느님의 속성은 이렇듯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과 인간에게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용어 중에 라하밈(רַחֲמִים, raḥamîm)이 있는데, 이는 깊은 동정심,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근인 레헴(רֶחֶם, reḥem)은 어머니의 태를 나타내므로, 라하밈이 뜻하는 자비는 어머니의 완전히 품어주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1] 창조와 강생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보여 준다면 자비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실 때, 모세에게 '야훼'라는 당신 이름을 세 번 선포하십니다. "나는 있는 나다."(탈출 3, 14)라

고 하시며 호렙산에서의 첫 번째 계시를 통하여 당신 백성을 위한, 당신 백성과 함께하는 하느님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포하실 때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탈출 33, 19)라고 계시하시며, 모든 자비는 당신의 은총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실 때도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탈출 34,6)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당신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은 끝까지 성실하심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는'이라는 하느님 호칭은 시편 103장 8절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반복되면서 마치 구약성경의 신앙고백처럼 되었습니다.[2]

'하느님의 자비'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그분은 우선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의 후견인이며 수호자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한 규정(신명 5,14 참조)에서 종들과 이방인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피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실재입니다.

02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르 1,15)고 선포하시며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온갖 질병을 앓던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적과,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구마의 기적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현존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많은 시간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이들,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들 그리고 죄

인들과 함께함으로써 하느님 자비가 베풀어짐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비의 근원이신 성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위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다소 멀게 느껴지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친근한 하느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가 천상자녀가 된 커다란 은총이며 오직 하느님의 자비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약성경은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 보여 줍니다.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9-37)에 나타난 하느님의 보편적 자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 끝까지 보살펴 주고, 다음날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환자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더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죄에 빠진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으로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에서 나오는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과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이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상징하며, 잃어버린 양과 은전을 되찾으려 하는 것과 집을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느님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보여 줍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자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강조하십니다. 특히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에서도 회개하는 자녀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아들이 사죄하기도 전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 줌으로써 아들의 품위를 되살려 줍니다. 집을 나가 있던 동안의 사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 자체가 기쁨입니다.[3]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토마스 사도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시어 당신의 손과 발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토마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의 자비를 뼛속 깊이 체험한 토마스 사도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이라는 굳건한 신앙고백을 하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4]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신비를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성체성사를 세우시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미사 전례 안에서 주님의 자비를 거듭 청할 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참으로 얻고 체험합니다. 전례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03 자비의 찬가, 마니피캇



루카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루카 1, 46-55)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루카 1,46)로 시작되는데, 불가타 역본에서는 '찬송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마니피캇'(Magnificat)으로 시작됩니다. 이 첫마디 '마니피캇'이 마리아의 노래를 지칭하는 곡명이 되었습니다.[5]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후, 친척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가득 찬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기를 '주님'으로,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사말을 듣고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느님의 위업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한 편의 시(詩)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루카 1, 46-50)은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업적에 대한 찬양이고, 두 번째 부분(루카 1, 51-55)은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신 구원 업적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신 구원계획에 대한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8)라는 구절은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자신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큰 자비를 내려주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루카 1,50)라고 찬미하며 끝이 납니다. 이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를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카 1,53)는 구절은 다시 한번 가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립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루카 1,54-55)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 계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의 구원으로 확장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를 보내주심은 세상 구원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절정입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지점에 마리아께서 서 계십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자비로운 행동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고, 믿음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에 따른 마리아의 노래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곧 인간을 향해 계시며 이 땅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더욱 어여삐 여기시는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04 자비의 실천, 자선 주일(慈善主日)

자선 주일은 매년 대림 제3주일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고통받는 이들에

게 자선을 실천하도록 일깨우기 위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설정한 날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비'는 하느님의 가장 놀라운 속성이며 그분의 선물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하고, 마니피캇의 기도와 실천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 자비를 전해야겠습니다.[6]

자선은 교회가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재물뿐 아니라, 재능과 힘, 시간과 마음까지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증언해야 하고 자비를 선포하고 자비를 베푸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미주

1. 곽승룡, 「자비」, p.15
2. 발터 카스퍼, 「자비」, p.96
3.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얼굴」 9항
4.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교회」, p.27, 바오로딸, 2014
5. 「가톨릭대사전」, p.2401
6. 라 카사 데 라 비블리아, 「마리아, 살아있는 복음」, p.54

참고 문헌

- 곽승룡, 「자비」, 바오로딸, 2012
- 발터 카스퍼 추기경, 「자비」, 가톨릭출판사, 2015
- 프란치스코 교황,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 「자비의 얼굴」, 2015
-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교회」, 바오로딸, 2014
- 「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 라 카사 데 라 비블리아, 「마리아, 살아있는 복음」, 생활성서, 2006

01 대림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구세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 기간 주일 미사 중에 하지 않는 것은?

❶ 대영광송 ❷ 보편지향기도 ❸ 신앙고백 ❹ 영성체송

02 대림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❶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❷ 대림시기는 모두 4주간이며, 이때부터 한 해의 전례 주기가 시작된다.
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묵상하는 시기이다.
❹ 대림시기에는 제대 장식을 간소하게 하고 사제는 자색제의를 입는다.

03 다음 구약성경의 말씀 중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구절이 아닌 것은?

❶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신명 5, 14)
❷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이사 49,13)
❸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이사 61,1)
❹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1열왕 12,30)

04 탈출기 34장 6-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시오.

"주님은, 주님은 (　　)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　　)에 더디고 (　　)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05 다음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시오.

루카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되찾은 은전의 비유'는 잃어버린 돈을 찾은 부인의 기쁨을, 죄인 한 사람이 (　　)할 때의 하느님의 기쁨에 비유한 것이다.

06 '마니피캇'은 무엇을 뜻하는가?

❶ 기뻐하다　❷ 찬송하다　❸ 회개하다　❹ 선포하다

07 마리아가 고백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9)에 나오는 하느님의 업적은 무엇인가?

❶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
❷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구원 업적
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으로부터 귀향하도록 하신 일
❹ 하느님의 아들의 탄생, 즉 육화를 이룩하신 일

08 대림 제3주일 복음(마태 11,2–11)에 나타난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❶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고운 옷을 입은 사람에 비유하셨다.

❷ 요한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길을 직접 준비했다.

❸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에서 예언한 표징들이 실현되고 있다고 분명히 하신다.

❹ 요한은 정의와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었다.

09 대림 제3주일 복음(마태 11,2–11) 중에서 ㉠,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을 닦아 놓으리라'"(마태 11,9–10).

	㉠	㉡	㉢
❶	그리스도	예언자	잘못
❷	예언자	사자	길
❸	성인들	사자	길
❹	예언자	예언자	잘못

10 다음 중 자선의 실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자선의 실천은 미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

❷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야 한다.

❸ 자신이 가진 것이 넉넉할 때만, 궁핍한 형제들에게 베풀 의무가 있다.

❹ 지극히 작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베푼 것이 그리스도에게 베푼 것이다.

대림
제4주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복음 말씀 | 마태 1,18-24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말씀 나누기



© 노틀담수녀회 김겸순 수녀 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순명으로 응답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당시 시대상으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터뜨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에 대한 배려로 남몰래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마리아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요셉과 같이 믿음 하나로 사회적 통념 밖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름과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대표하는 목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내 안에 있기에 하느님을 채울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느님의 피조물다운 비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동시에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지 않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덜어주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비운 자리에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출발하는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범이며, 주님 안에서 가장 탁월한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동정 마리아는 능동적인 순명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성모님께 다가갈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단순함과 생명의 말씀이 지닌 영원한 새로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1]

01 마리아, 순종으로 응답하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주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이라는 뜻의 통상적인 히브리식 인사 '샬롬'(shalom)이 아닌 그리스식 '카이레'(chaire)로 인사합니다. 이 말의 본뜻은 '아베마리아'로 우리가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기뻐하여라!"입니다.[2] 이 인사말을 통해 신약성경이 시작되고 세상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이 한순간에 열리며 그리스도교적 메시지의 보편성이 제시됩니다.
사실 천사의 인사말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심란해집니다. 처녀 마리아는 메시아의 잉태라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정중하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루카 1,34) 그리고 다시 하느님 뜻과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이 알기도 전에 선사된 하느님 은총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마리아는 "왜?"라고 묻지 않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가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예"라고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으로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했기에 하느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자발적인 응답은 하느님 은총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공적으로 만나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으로 새로운 신약,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3]

마리아는 모든 일상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희생적 순명 Fiat(피앗)과 믿음으로 참되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른 순간, 그 믿음은 전 생애를 통해 성장해 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생겨날 교회는 마리아와 같이 하느님 앞에 "주님의 종"(사도 4,29)으로 서 있고, 마리아는 자신의 응답에 뿌리를 둔 교회 공동체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4]

02 첫 아들을 낳았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1코린 15,47).

마리아가 해산할 무렵, 황제는 세금 징수를 위해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등록을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여관에는 그들이 누울 방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루카 2,7) 가난한 탄생 안에서 인간의 구원



© 조광호 신부 作

이 신비스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거룩한 탄생의 첫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가난한 이들'을 대표하는 목동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목동들은 천사들의 표징을 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찾아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깁니다.

가브리엘의 인사를 들은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순간과 자신의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목동들이 와서 말한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이는 당신 아들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내적 묵상은 신앙인과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마리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집트로 피신하여 이방인의 삶을 살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사흘 동안 아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신비를 향해 열었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범적 모습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앞으로 십자가라는 '해산의 진통'[5]을 겪을 것이며, 그 진통으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이 찾아올 것입니다.

03 카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마리아의 간청으로 첫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성모님이 구

원의 중재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카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성모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잔치가 망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모님은 이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곤궁에 처한 이 난감한 현실 앞에서 성모님은 아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행하리라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실현한 것입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요한 2,4)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언뜻 보면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고, 성모님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여 순명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독에 물을 채워라."(요한 2,7)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난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어머니의 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내 일처럼 아파하며 도울 것을 찾는 성모님의 모습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비어 있던 물독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 물은 참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기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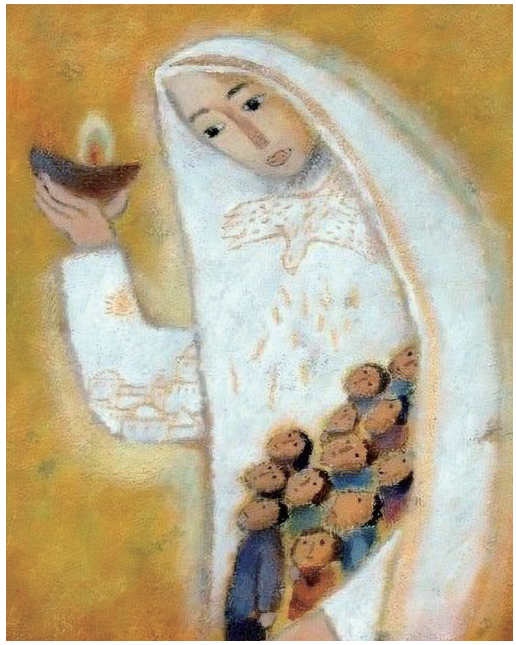
마리아는 적극적인 중재로 예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청

하는 마리아의 중재는 신뢰의 중재, 기도의 중재입니다. 그리고 잔치 손님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포도주를 청하는 영적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교회헌장, 62항) 중재자로서의 사명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카나의 기적을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구약의 계약이 예수님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첫 표징의 기적은 성모님의 청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으로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성모님의 믿음과 전구를 통해 사람들은 참 좋은 포도주라는 커다란 은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믿음의 어머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루카 1,28)하고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순간부터 성모님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순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당신이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보여 주고 계십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 김옥순 수녀 〈우리 어머니 마리아〉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가장 완전한 믿음의 모범으로 평생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여정 중 어느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성모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어머니로서 교회에 자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은 교회

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교회의 심장 소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살아있는 구원의 도구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평생 유지하시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셨고 간직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아드님의 모든 활동에 당신 자신을 바치시어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모님은 모든 순간에 침묵과 기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모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성모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도구로서 교회의 순명과 봉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든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메말랐던 신앙심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되묻는 작업이,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독에 물을 채우는 작업일 것입니다. 언제나 성모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신앙의 물을 채우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대림시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모성심에 대한 신심은 그리스도의 성심에 합당한 유일한 경배에서 결코 아무것도 빼지 않고 오히려 증진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 줍니다.”[6]

미주

❶ 라 카사 데 라 비블리아, 「마리아, 살아있는 복음」, p.15
❷ 손희송, 「주님의 어머니, 신앙인의 어머니」, p.44
❸ 손희송, 「주님의 어머니, 신앙인의 어머니」, p.50
❹ 손희송, 「주님의 어머니, 신앙인의 어머니」, p.50
❺ 브랜드 피트리.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p.182
❻ 교황 프란치스코 칙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76항

참고 문헌

- 손희송, 「주님의 어머니, 신앙인의 어머니」,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7
- 브랜드 피트리,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바오로딸, 2022
- 라 카사 데 라 비블리아, 「마리아, 살아있는 복음」, 생활성서, 2006
-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25

01 대림시기 각 주간이 반영하는 전례의 성격을 옳게 연결하시오.

❶ 대림 1주간 •	• ㉠ 구세주의 깨어 기다리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
❷ 대림 2주간 •	• ㉡ 예수 탄생 예고와 성모 마리아의 넘치는 기쁨
❸ 대림 3주간 •	• ㉢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예고와 속죄 권유
❹ 대림 4주간 •	• ㉣ 구세주의 오심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는 권고

02 다음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 )이라고 하리라"(마태 1,23).

03 대림 제4주일 복음(마태 1,18–24)에 나타난 요셉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❶ 욕심이 많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❷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❸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❹ 의로움의 삶을 사는 사람

04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은 누구인가?

❶ 한나 ❷ 베로니카 ❸ 마리아 ❹ 마리아 막달레나

05 성모 마리아를 향한 가톨릭교회의 공경과 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였다.

❷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며, '평생 동정'을 찬미한다.

❸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순수한 믿음을 실현하신 분으로 공경한다.

❹ 가톨릭교회는 마리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동등하게 여긴다.

06 구원 사업의 협조자 '성 요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의로운 사람이었다.

❷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❸ 하느님 구원의 협조자일 뿐, 예수님의 성가정 부모는 아니었다.

❹ 하느님께서는 요셉을 당신 외아드님과 성모님의 보호자로 택하셨다.

07 '카이레'(chaire)의 본뜻은 무엇인가?

❶ 기뻐하여라 ❷ 아파하여라 ❸ 슬퍼하여라 ❹ 고통스럽다

08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린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❶ 잔치 준비가 소홀한 주인을 나무랐다.

❷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포도주를 구해 오도록 하였다.

❸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❹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짐을 알렸다.

09 구원의 도구이신 마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천사의 알림으로 수태고지(受胎告知)를 들었을 때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낮추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였다.

❷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면 자신의 지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❸ 침묵과 기도로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

❹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아드님의 모든 활동에 당신 자신을 바치시어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셨다.

10 성탄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써 보십시오.



2025년 대림판공문제집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발행일 2025년 11월 3일
발행인 이용훈
편집인 김태완
발행처 수원교구 복음화국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정자동 578)
편 집 수원교구 복음화국 기획연구팀
전 화 031-360-7631
F A X 031-360-7840
E-mail v2-gospel1@casuwon.or.kr

디자인 하상출판사
전 화 031-243-1880(대)

성명(세례명)

전화번호

본당

구역 · 반

※ 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국으로 사전 문의 바라며 모든 내용의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 앞뒤 표지 그림 : 성바오로딸수도회 이은숙 수녀(출처 : 바오로딸콘텐츠)

이 책의 본문용지는 수원교구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봉헌"**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